

최면은 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다면,

병이 나은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면은 맞을수도, 맞지 않을수도 있으니,

너무 과신하지는 마세요~

유식사상 (유식론, 중생심, 마음의 근원) ~인간은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 기관(눈,귀,코,혀,몸,의식)이 있는데, 6번째의 "의식"을 흔히 마음이라 부릅니다. 제6 "의식"을 다시 세분하여, 제7식을 "마나스식", 제8식을 "아뢰야식"이라 합니다.

현대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제6식을 "의식"의 세계 / 제7식과 제8식을 "무의식"의 세계라 분류할수 있습니다. 제8식 "아뢰야식"은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무의식의 종자라는 것입니다(유식사상). 원효스님은 그의 철학적 유식론인 "대승기신론소"에서, 제8"아뢰야식"은 모든 선악을 분별없이 포용하고 있고, 제7"마나스식"은 "나"라는 집착에 의한 교만의 마음이며, 제6 "의식"은 탐진치라는 탐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선악을 분별없이 포용하고 있는, 이 아뢰야식이 우리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무의식의 종자이며 업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6식인 탐욕의 마음으로 전개된 것이, 삼라만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식론에 의한 불각의 마음을 깨뜨려 나가면, 깨달음의 시각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즉, 탐진치(제6 "의식")라는 탐욕의 마음을 없애고 →"나"라는 집착과 교만(제7 "마나스식")의 마음을 없애면 →무의식의 종자이며, 업의 종자(제8 "아뢰야식")도 서서히 소멸되어, 깨달음의 시각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8식인 아뢰야식은 모든 선악을 분별없이 포용하고 접수하는 무의식인데, 자신의 행위는 자동적으로(무의식적으로) 마음에 새겨진다는 자연적 원리를 이용하여 수사하는 기법이, 외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과학적 수사기법인, 바로 최면수사 기법입니다

최면은 아뢰야식에 저장된 기억을 정정하거나, 지우는 방법으로 치료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면에서 연령역행의 방법으로, 전생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전생중 어떤 특정 시점을 지정해야하고, 그 시점의 전생기억 또한, 여러번의 윤회를 거듭하는 동안에, 자신의 업이 소멸되어 없어질수도 있으므로, 정확하다 말할수는 없습니다(전생 윤회에 관하여는, 서양 심리학자인 에드가 케이시의 "전생 리딩 카르마 사례들"이 유명하며 이에 관하여는 인터넷 또는 책자참조)

이러한 근원적인 무의식의 종자인 아뢰야식은 누가 가르쳐 준적이 없음에도,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젖을 찾는 행위나, 종으면 꼬리를 흔드는 행위도, 대대로 훈습된, 무의식인 아뢰야식 작용이 아닐까? 생명이 DNA유전자로 프로그램된, 단순한 물질만의 모음이라면, 그 물질에 무의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회 ~ 오온을 통한 생각과 느낌은 나의 본체가 아니고, 그 생각과 느낌을 감지하는 그것, 그 자체가 나의 본체이다. 나의 오온이 소멸해도(육신의 소멸, 죽음), 나의 본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저승이다. 혹시, 나의 본체가 미망으로, 이승에 미련과 집착과 원한등을 가지며, 이승에 간섭하려 하고, 이승에 머물려고 집착하는 영혼이, 집착령, 원혼령등의 귀신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목숨을 끊게 되면, 그 속마음은 이승에 대한 원한

이 깊어, 그렇게 한것이므로, 이승에 원한이 있는 일종의 원한령이다). 이들이 천도재의 대상입니다. 이들중 산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방언도 하는 것을 빙의라 말하는데, 이러한 빙의한 귀신은 강한 집착력을 보이므로, 천도보다는 원력있는 스님,법사,무속인에 의한 퇴치의 대상일 뿐입니다.

한편, 이승에 대한 원한과 집착을 버리고, 다음생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곳을 저승이라 하며, 이런 저승의 삶에서 업의 소멸을 위하여, 인연법으로 다시 이승에 오게 되는 자연현상을 윤회라 말함. [인연법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 과거의 모든 기억은 무의식(제8식 "아뢰아식")에 저장됨과 동시에, 모든 기억은 잊어버리게 되며, 새로 받은 오온(육신)에 의한, 과거의 업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승의 삶(역학에서는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주"라 말하고 있음)] → 사후세계의 도표, 저승의 모습은 아래의 블로그 카타고리 글을 참조

윤회와 아뢰아식 ~인간은 "안,이,비,설,신,의"라는 6가지 감각기관(눈,귀,코,혀,몸,의식)이 있는데, 6번째의 "의식"을 흔히 마음이라 부릅니다. 이 제6 "의식"을, 불교에서는 다시 세분하여, 제7식을 "마나스식", 제8식을 "아뢰야식"이라 말 합니다. 현대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제6식을 "의식"의 세계라 하고, 제7식과 제8식을 "무의식"의 세계라 분류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제8식인 "아뢰야식"을,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무의식의 종자라 말합니다. 이것이 유식사상 입니다. (마음의 근원~ 유식사상).

즉, 이 아뢰야식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선과 악을 분별없이 포용하고 접수하여, 선업이나 악업이 되므로, 우리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무의식의 종자이며, 업의 종자라는 것입니다(그러므로, 평소 자신의 행위에서, 악업을 멀리하고, 항상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행위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자연적 원리를 이용한 수사가 바로, 최면수사입니다.

자연적 원리인, 근원적인 무의식의 종자인 아뢰아식은, 누가 가르쳐 준적이 없음에도, 동물들이 태어나면서 젖을 찾는 행위나, 좋으면 꼬리를 흔드는 행위도, 대대로 훈습된, 무의식인 아뢰아식 작용이 아닐까요? 만약, 생명이 DNA유전자로 프로그램된, 단

순한 물질만의 모음이라면, 그 물질에 무의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모든 생명에는 대대로 혼숙된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윤회의 증명이 아닐까요?

우주와 별 ~ 우주에는 1천억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약1천억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속하는 은하의 1천억개의 별중의 하나가 태양이며 그 태양의 흑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센타우리 프록시 라는 별로, 빛의 속도로 4.24년(4.24광년)이 걸리곳에 있으며, 눈으로 보이는 센타우리 알파A와B 라는 별은 빛의 속도로 4.37년(4.37광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윤회는, 이러한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항하사 모래알만큼 많은 세계, 삼천 대천세계의 자연현상입니다.

삼천대천세계 ~ 한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1세계라 말하는 데, 이런 1세계가 1천개가 모인 것을 소천세계 라 말한다. 이런 소천세계가 1천개 모인것을 중천세계 라 말하고, 중천세계가 1천개 모인것을 대천세계 라 말한다. 즉, 대천 세계는 10억개의 부처님세계이다. 이런 10억개의 부처님세계인 대천세계가 3천개가 있으니, 3조개의 우주세계를 이르는 말이 된다. 이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수도 없이 많은, 무한한 우주세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 무한한 우주세계가 모두 불국토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바세계 ~ 불경에서, 우주에는 수도없이 많은 불국토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구에만 인간과같은 고등 생명체가 살고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쪽에 동승신주 남쪽에 남섬부주 서쪽에 서우화주 북쪽에 북구로주 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구전체가 속하는 세계를 남섬부주 염부제 사바세계 등으로 부릅니다.

수미산~광대한 우주를 표현하는 불교적 우주관에 기인한, 특정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을 말한다. 즉, 수미산은 특정 우주에 있어서의 그 중심을 의미하는 상상의 산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저급하여, 오직 동물적 생각뿐인, 식욕, 음욕, 수면욕만을 가지면서, 자신의 동물적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차후, 동물로 환생할수 있습니다. 일반적 사람은, 식욕, 음욕, 수면욕 외에~~~재물욕과 명예욕을 가지므로, 대부분 인간으로 환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참조

반야심경 원문과 해석, 유식사상과 공사상에 대해 ~블로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andsing/221558711173>